

배포일시	2021년 9월 27일
보도일시	즉시

노웅래 민주연구원 원장, “모빌리티 혁신이 탄소중립의 열쇠”

- 민주연, 28일(화) 현대차그룹 싱크탱크 HMG경영연구원 방문
- 송영길 당대표도 참석하여 모빌리티 혁신 정책제언 청취 예정

-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(원장 노웅래)이 미래·전략산업에 대한 현장의견 청취를 위해 28일(화), HMG경영연구원을 방문한다.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참석하며, 모빌리티 산업혁신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.
- HMG경영연구원은 1999년 현대자동차 부설 연구소로 설립되었으며, 2020년 12월 글로벌 경영연구소와 인재개발원을 통합해 신설된 조직이다. 김견 원장(부사장)이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.
- 민주연구원과 HMG경영연구원간 정책 간담회는 민주연구원이 기업 및 산업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 민주연구원은 4대 대기업 싱크탱크와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성장을 기반으로 한 정책공약 개발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.
- 노웅래 의원은 “기존의 차 산업에서 미래 모빌리티(탈 것) 산업으로 혁신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” 며, “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인구과밀화 등으로 인한 교통혼잡 및 환경오염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” 고 강조했다.
- 이어 노 의원은 “모빌리티 혁신이 곧 탄소중립의 열쇠나 다름없다” 며, “조세지원 및 규제개선에 대한 생생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” 고 입장을 밝혔다.
- 한편 민주연구원 노웅래 원장과 경제분야 연구위원 등 5~6여명은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SK경영경제연구소(소장 염용섭), LG경제연구원(원장 김영민), 삼성경제연구소(소장 차문중), HMG경영연구원(원장 김견) 등 주요 기업 경제연구소를 차례로 찾아가 반도

체, 차세대 배터리, 바이오, 모빌리티, 미래차 등 미래-전략산업에 관한 정책적 제안을 듣기 위해 청책 간담회를 총 네 차례 진행한 바 있다. 끝.

※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청책 간담회 현장의 언론인 출입은 제한될 예정이오니,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청책 간담회 결과 보도자료는 행사 종료 후 배포할 예정입니다.